

순천 아파트 LED조명 5배 부풀려 설치 '논란'

인근 신축아파트 건설 피해 보상비로 개당 6000원짜리 3만원에 구매 말뚝 대책위-시공업체 합의를 비공개 의혹

순천시 조례동 한 아파트에서 LED조명등 교체 사업을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순천 H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 2016년 8월 1억7358만원을 들여 LED조명등 교체와 CCTV 설치 공사를 진행했다. 인근 L아파트도 같은 기간에 1831만원을 들여 LED조명

등을 바꿨다.

공사비는 인근 신축아파트 건설에 따른 피해 보상비로 집행됐다.

앞서 이 아파트 주민들은 H아파트피해대책위원회(이하 피해대책위)를 구성해 인근 신축아파트 건설에 따른 피해 보상비로 2억1000만원을 받았다.

문제는 피해대책위가 H아파트와 L아파트의 LED조명등 교체 사업을 하면서 직부등(줄이나 대에 매달지 않고 천장이나 벽에 직접 설치한 전등)의 가격을 시중가보다 5배 비싼 개당 3만원에, 센서등은 4배 이상 비싼 개당 3만3000원에 구매했다는 것이다. LED조명등 구입비용은 6000여만원에

달한다.

이에 주민들은 입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비가 특정인의 배만 불려준 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LED조명등 교체 사업을 주도한 피해대책위 A위원장과 시공업체 B대표는 친인척 관계라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해당 LED조명등을 만드는 제조회사 관계자는 "H아파트에 공급한 직부등은 개당 6000원, 센서등은 8000원, 평판등은 2만60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대책위가 LED직부등을 제조사 판매가보다 5배, 센서등은 4배 이상 비싼 가격에 구매한 것이다.

이에 대해 A대책위원장은 "모든 공사는 시행사인 S건설에서 알아서 했다.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시행사에 알아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하지만 시행사인 S건설 관계자는 "충분한 검토 이후 시공업체를 선정했고 보상과 관련해서는 대책위와 합의를 작성한 이후 이행한 것"이라며 "시공업체 선정은 대책위가 견적서로 지정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합의를 비공개하기로 해 내용을 알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공업체 B대표는 "LED 조명등은 합리적인 견적에 의해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황금어장 만든다'

보성군, 점농어 10만마리 방류



보성군은 벌교읍 상진항, 득량면 선소항, 회천면 근화항에서 수산 종자 10만마리를 방류했다고 21일 밝혔다.

방류 행사에는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어촌계장, 어업인 등이 함께했으며 보성군 연안에 적합하고 고부가가치 어종인 점농어 치어를 방류했다.

방류한 점농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질병 검사를 통해 선별됐으며, 자연환경에 적응력이 높은 어종으로 관내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은 수산자원 보장을 위해 2004년부터 매년 수산 종자를 방류하고 있다.

올해도 오는 6월 대하 140만마리, 감성돔 26만마리 등 190만마리를 추가 방류할 예정이다. 또 행사에서는 인근 어업인을 대상으로 종자 방류사업의 효과와 어족자원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방류 후 최소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어린 물고기 포획 등 불법 어업 근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청년취업 대응문 '여수 테크니션 스쿨' 개강

올 50명 선발...8.8대1 경쟁률 10년간 평균 취업률 92%

여수국가산업단지 취업의 대응문인 제11기 테크니션 스쿨이 지난 20일 개강했다.

테크니션 스쿨은 3월부터 10월까지 정규과정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과 소그룹활동으로 일부 수업을 진행하다가 이날 개강식과 함께 본격적인 취업교육과정에 들어갔다.

교육과정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취업에 최적화된 인성교육과 현장실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술·영어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여수시는 지난 1월과 2월 서류전형, 필기시험, 인·적성 검사 및 면접을 거쳐 최종 50명을 선발했다. 총 444명이 지원해 8.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테크니션 스쿨은 2010년 제1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10기까지 372명 수료했으며, 이 중 343명이 여수국가산업단지 및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취업하는 등 92.2%의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교육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테크니션 스쿨 장학회'는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개인의 발전을 넘어 지역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교육기간 동안 열심히 배우고 익혀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기를 기원하



여수국가산업단지 취업 대응문인 '제11기 테크니션 스쿨' 개강식이 지난 20일 테크니션 스쿨 교육장에서 열렸다. (여수시 제공)

며, 취업 이후에도 지역에서 받은 혜택을 사회와 우리 후배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지역의 큰 일꾼으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테크니션 스쿨은 여수시 청년

일자리 창출의 대표 사업"이라며 "급변하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취업 상황을 다각도로 반영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 소제지구 행정소송 최종 승소...올해 개발 착수

1834억원 투입 2023년 완공

여수시가 소제지구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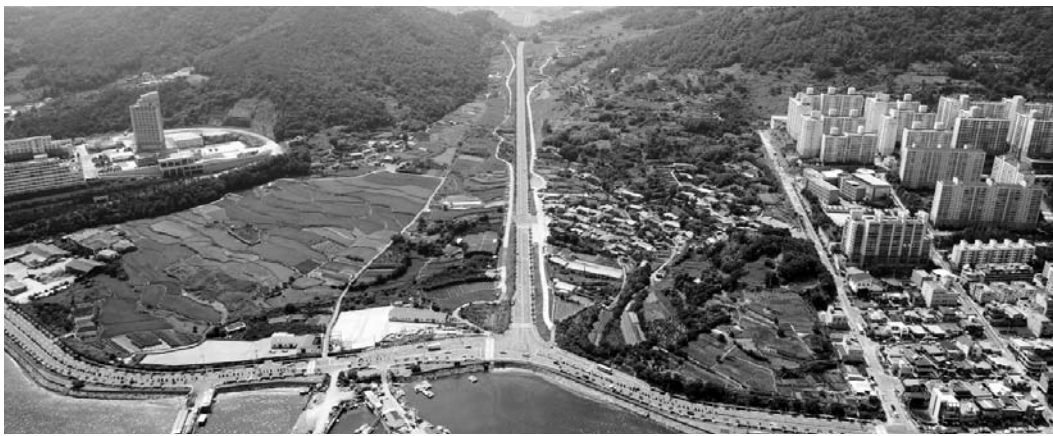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소제지구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낸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 제안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18년 3월 소제지구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소제지구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을 제안했다. 여수시는 소제지구가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택용지로 지정됐고, 이미 공영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안을 거부했다.

토지소유자들은 결국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여수시는 소제지구 개발을 위해 2016년부터 여



여수시는 소제지구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개발사업을 착수했다. (여수시 제공)

수산업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실시설계에 착수, 지난해 6월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했다. 올해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3년 완공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1834억원을 투입해 41만8000㎡ 부지에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상업용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계획 인구는 7985명이며, 319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이 약 49%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택지를 목표로 조성 계획을 세웠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여수시의회, 조례 제정

여수시의회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21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제20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주중섭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단체가 피해자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희생자 추모 기념물 설치·관리사업과 강제동원 피해 조사·연구, 피해자 복지·인권 증진 등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는 만주사변에서 태평양전쟁까지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자가 입은 피해로 규정했다.

적용 대상은 여수시에 주소를 둔 피해자와 유족 단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고흥군 '청년행복 브리지'

1억8000만원 따냈다

행안부, 인구감소 해결 프로그램 선정

고흥군은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에서 '우리 동네 청년행복 브리지 프로젝트'가 선정돼 1억8000만원을 확보했다.

21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과 현장 수요에 맞는 인구감소 문제해결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공모한 것으로 전국에서 31개 시군이 지원해 10곳이 선정됐다.

고흥군은 내년 4월까지 우리 동네 청년행복 브리지 프로젝트 사업으로 '농촌에서 길을 찾다' 청년 창업 아카데미, 지역 맞춤형 무인기(드론) 스쿨 운영, 청년 유턴 고흥사랑 사관학교, 고흥사랑 청년 협의회 SoSo한 동아리 운영, 건강향 지역사회 예술 창작활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주도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역이 주도하는 특색있는 인구감소 대응 사업이 중앙부처 공모를 통해 인정받은 것"이라며 "귀농귀촌 행복학교와 올해 10월 문을 여는 청년내일아트센터 등을 이용해 인구 유입과 청년 활력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